

치 사

푸르른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넘치는 봄날 한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불교음악인들과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무대인 <제11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그 지역의 살아 숨 쉬는 선인들의 정신과 유무형의 문화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1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서 일평생 대장경 한글화를 위해 정진하셨던 운허 큰스님의 자취를 조명하면서, 큰스님의 숨결이 곳곳에 살아 있는 봉선사에서 진행하게 되니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로 여겨집니다.

집집마다 한글 대장경을 모셔, 누구라도 지혜로운 가르침이 온 누리 곳곳마다 두루하기를 발원하셨던 큰스님의 덕화가 두루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시대에 음악은 인류에게 편안과 즐거움을 주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해진다는 큰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오늘의 이 음성공양이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녹여주는 원융의 감로수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어울리는 삶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야단법석을 준비하느라 진력하신 경기도북부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이며 봉선사 주지이신 정수스님과 남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여러 대중스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우 남양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진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음악제를 준비해 주신 200여명의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과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며,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롭게 전해지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5월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